

TEXTILE & FASHION TREND ISSUE



엔리얼에이지 24 SS 컬렉션

3D DIGITAL 어도비, 엔리얼즈의 스마트 디스플레이 드레스 화제 감성을 자극하는 첨단 하이테크 패션의 등장⁽¹⁾

기술 중심에서 감성을 자극하는 첨단 하이테크 패션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기존의 테크웨어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지향적인 웨어러블 테크웨어였다면 요즘은 패셔너블한 감성 테크웨어가 등장했다.

어도비(Adobe)는 지난 10월 10일 ‘어도비 맥스(Adobe MAX) 2023’에서 몇 초 만에 바뀌는 스마트 디스플레이 패브릭으로 제작된 인터랙티브 드레스를 공개했다.

‘프로젝트 프림로즈(Project Primrose)’ 이니셔티브에 따라 제작된 디지털 드레스는 정적인 기존 의류와 달리 순간적으로 패턴이 바뀌며 새로운 룩을 창조한다. 이는 하이테크 스타일링으로 제작된 것으로 자체적으로 디스플레이를 설정할 수 있

고, 움직임에도 반응한다. 어도비는 이 드레스에 자사 소프트웨어인 일러스트레이터, 애프터이펙트 등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디자이너 브랜드인 ‘엔리얼에이지’는 2024 S/S 컬렉션에서 광변색 기술을 통해 색상이 변화하는 두번째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은 투명한 무색의 PVC 베이스 의류가 무대에 오른 뒤 생동감 있고 다양한 컬러로 변화하며 새로운 패턴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그렸다. 데님, 면 소재의 그래픽 테이프 솔기는 그 색상이 더욱 강조되어 화려함을 더했다. ‘엔리얼에이지’ 컬렉션은 존재와 비존재라는 철학적 비유를 구현하는 시적이고 초자연적인 우주를 연상시켰다.



아디다스 라이팅 슈즈 'NMD S1'

3D DIGITAL 아디다스, 음악을 감지하고 조명에 반응하는 라이팅 슈즈⁽²⁾

반도체 기업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와 협업... IoT와 패션의 만남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최첨단 센서를 탑재한 라이팅 슈즈(Lighting Shoe) ‘NMD S1’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다.

‘아디다스 오리지널’ NMD S1 운동화는 첨단 센서 기술을 채택해 주변의 음악과 빛을 감지하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다양한 조명 효과로 반응한다. 마이크로폰과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오디오 정보를 신발의 역동적인 형형색색의 LED 효과로 변환하는 것이 특징

이다. 이 프로토타입을 통해 테크놀로지와 패션의 획기적인 결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제품은 고성능 XENSIV™ MEMS 마이크로폰을 사용해서 미세한 음향 신호까지 감지할 수 있고, PSoC™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오디오 입력을 처리한다.

아담 화이트(Adam White) 인피니언 전력 및 센서 시스템 사업부 사장은 “직관적 센싱을 활용한 상황 인식에 IoT 기기를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피니언 라이팅 슈즈는 테크놀로지와 디지털화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독창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부르크하르트 더들러(Burkhard Dümmler) ‘아디다스’ 혁신 담당 이사는 “혁신과 성능은 ‘아디다스’의 두 가지 핵심 동력이다. 우리의 혁신은 놀랍고, 평범함을 넘어서고, 무엇보다 재미있어야 한다. 인피니언과 구현한 라이팅 슈즈 프로토타입은 테크놀로지와 스타일이 서로 보완해 독특한 디지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FASHION ‘버버리’, 성수동에 ‘성수 로즈’ 버버리 스트리트 조성⁽³⁾

성수로즈 · 성수 슈 · 성수 보틀 복합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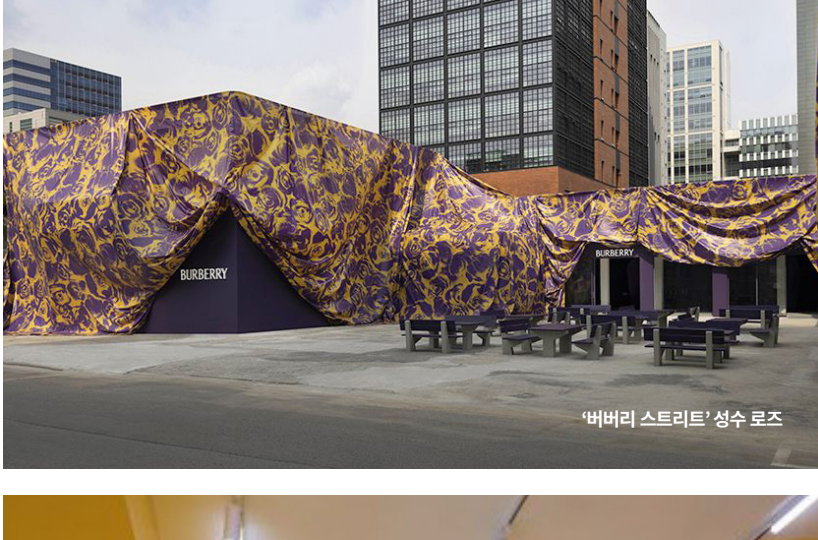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버버리’가 글로벌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버버리 스트리트’의 두번째 목적지로 성수를 택했다.

10월 7일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 진행되는 ‘버버리 스트리트’는 브랜드 신념인 ‘탐험 정신’과 발견과 개척’에 기반한 프로젝트로 지난달 런던에서 처음 선보인 후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어 상하이, 뉴욕, 도쿄 등 전세계 5개 도시에서 펼쳐진다.

성수동 연무장길에서 진행되는 서울 프로젝트는 ‘성수 로즈’, ‘성수 슈’, ‘성수 보틀’ 총 3개의 팝업 공간으로 조성됐다. 메인 팝업인 ‘성수 로즈’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다니엘 리의 첫 버버리 컬렉션인 2023년 겨울 컬렉션의 주요 테마 ‘잉글리시 로즈’에서 영감을 얻었다. 장미의 잎을 형상화한 페탈 메이즈 형태의 인테리어로 구성됐다. ‘성수 로즈’ 팝업 내에는 영국 레스 토랑 ‘노먼스’와 협업해 영국 가정식 메뉴를 선보이는 ‘노먼스 앤 버버리’ 카페로 꾸며졌다.

이와 함께 다니엘 리의 2023 윈터 컬렉션 중 슈즈 컬렉션을 선보이는 ‘성수 슈’ 팝업, 휘 워터보를 컬렉션을 선보이는 ‘성수 보틀’ 팝업으로 기획됐다.

버버리의 조나단 아케로이드 CEO는 ‘버버리 스트리트’는 ‘버버리’의 EKD(기마상 디자인) 로고의 깃발을 쫓는 디자인에서 착안해 도시를 점령한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목표다. 한국의 ‘버버리’ 매출의 9%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이자 대중 문화 전반에 걸쳐 선도적인 곳으로 두번째 점령지로 선택했다”라고 말했다.



‘버버리 스트리트’ 성수 로즈



‘버버리 스트리트’ 성수 보틀



유니클로

FASHION 회복세로 돌아선 ‘유니클로’, 지난해 영업이익 28% 증가⁽⁴⁾

중국 시장 호황... 매년 80개 신규 매장 오픈 계획 세워

‘유니클로’를 전개하는 패스트 리테일링(Fast Retailing)이 전년대비 영업이익 증가율 28%를 기록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특히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연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며 2년 연속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패스트 리테일링 측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12개월간 영업이익은 3,811억엔(한화 약 3조 4,505억엔)에 달한다. 이는 전년동기 2,973억엔

(한화 2조 6,191억엔)과 비교해 28% 증가한 수치다. 글로벌 금융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장세라면 패스트 리테일링의 내년 영업이익은 4,500억엔(한화 약 4조 746억엔)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나이 타다시 CEO는 “회사가 예측을 뛰어넘는 기록적인 연간 실적을 달성한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소비자들의 니즈가 변화했고, 럭셔리보다 실용적인 가치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패스트 리테일링은 홍콩과 대만을 포함하는 중화권에 매년 80개의 신규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며, 북미 지역에 20개 매장, 유럽에 10개 매장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중국 본토에는 일본보다 많은 930여개 ‘유니클로’ 매장이 운영 중이다. 중국의 뒤를 이어 북미와 유럽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효성 스판덱스



효성티앤씨 스판덱스 브랜드 ‘크레오라’

TEXTILE 효성티앤씨, 스판덱스 수요 및 생산 가동 회복세⁽⁵⁾

중국 생산거점 가동률 82%까지 끌어올려... 흑자전환도 성공

효성티앤씨의 ‘스판덱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및 수요를 회복하고 있다. 예전의 기세를 되찾으며 효성티앤씨도 다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스판덱스는 효성티앤씨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제품으로 코로나19 팬데믹 특수를 토틈히 누리기도 했다. 생산거점은 중국을 중심으로 인도와 베트남, 튀르키예, 브라질 등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수요를 회복하면서 중국 생산거점 가동률은 82%까지 끌어올렸다.

효성측은 수요 회복세의 주요 요인으로 요가, 필라테스 등 스판덱스 의류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점을 꼽았다. 지난 2021년 효성티앤씨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약 6배 증가한 1조 4,237억원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바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은 1,236억원으로 그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스판덱스의 수요도 회복됐다. 올해 2분기 기준 평균 42일수도 재고일수도 현재 34일로 줄었다.

효성티앤씨 연구원은 “스판덱스 생산량 확대를 위해 중국 남사에 2억 300만 달러를 투자해 스판덱스 설비를 중국과 인도에서 라인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거점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스판덱스 세계 점유율 1위 자리를 수성하기 위해 시장 및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추가 투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르비오스의 바이오 재활용 공정 섬유 라인

TEXTILE 카르비오스, 혁신적인 폴리에스터 재활용 라인 공개⁽⁶⁾

‘ON’, ‘푸마’, ‘살로몬’ 등 컨소시엄 파트너로 협업

플라스틱과 직물 라이프사이클 기업 카르비오스(Carbios)가 롤랑 레퀴르(Roland Lessere) 프랑스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클레르몽 페랑에 있는 데모 공장에서 바이오 재활용 공정 섬유 라인을 가동했다.

카르비오스는 플라스틱 및 직물의 수명 주기를 재창조하기 위해 생물학적 솔루션을 개발하고 산업화하는 생모 공학 회사이다.

카르비오스는 수소적 회사로 재활용 공정을 통

해 중고 의류나 절단 스크랩의 직물 폐기물을 해중합에 적합한 원료로 변환하는, 완전히 통합되고 자동화된 라인을 개발했다. 특히 이번 공정은 단추, 버클과 같은 단단한 부품의 파쇄 및 추출 등 모든 준비 단계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폴리에스터 직물은 전 세계 PET 시장에서 3분의 2를 차지하지만 현재 직물 폐기물의 13%만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단 1%만이 섬유로 재활용된다. 카르비오스의 자동화 라인

은 직물 폐기물을 효소 재활용을 위한 원료로 변환하기 위해 모든 단계(파쇄 및 추출)를 통합하는 기술이다.

이와 함께 카르비오스는 제품 공정의 상용화를 위해 파트너 브랜드 ‘온(ON)’, ‘푸마’, ‘살로몬’ 등과 컨소시엄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들은 바이오 재활용에 대해 섬유 간 컨소시엄과 진행 중인 작업을 완료하고 카르비오스 기술의 산업 발전을 가속할 것이다.

(1) 퓨처리즘, ADOBE SHOWS OFF DRESS THAT CAN CHANGE ITS PATTERN ON THE FLY, 23년 10월 16일
(2) 아시아경제, 주변 음악 비트에 맞춰 '반짝반짝'... 아디다스 신발에 '반도체' 탑재, 23년 10월 15일
(3) 패션엔, 버버리, 성수동에 글로벌 프로젝트 버버리 스트리트의 '성수 로즈' 오픈, 23년 10월 6일
(4) REUTERS, Uniqlo owner Fast Retailing sees 18% rise in annual profit, plans more stores in China, 23년 10월 12일
(5) 시사저널e, 효성티앤씨 "스판덱스 가격수요 회복 눈앞"... 중국 생산거점 가동률 82%, 23년 10월 15일
(6) 뉴스와이어 제공